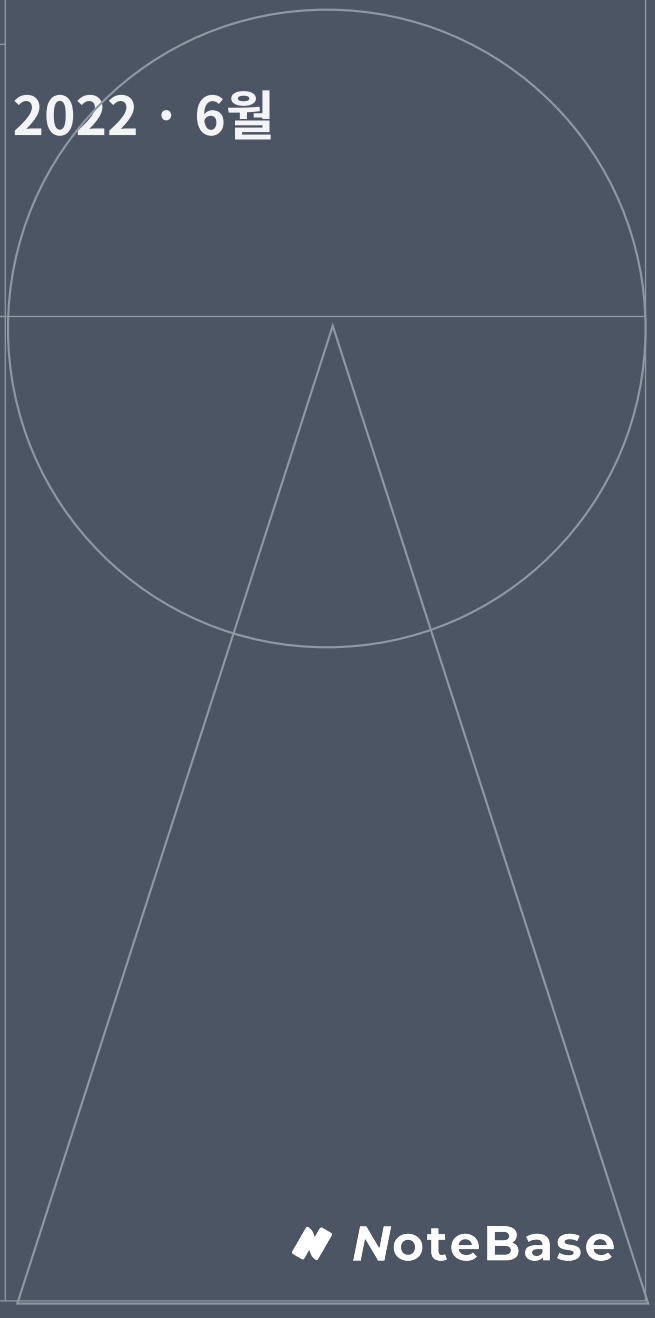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2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2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2 · 6월

문 1.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군락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미가 채택한 경영방식은 철저한 분업제도이다. 개미사회가 성취한 분업 중에서 사회학적으로 볼 때 가장 신기한 것은 이른바 ( ) 분업이다. 여왕개미는 평생 오로지 알을 낳는 일에만 전념하고 일개미들은 그런 여왕을 도와 군락의 ( )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자신의 유전자를 보다 많이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라는 진화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스스로 자식을 낳아 키우기를 포기하고 평생토록 여왕을 보좌하는 일개미들의 행동처럼 불가사의한 일도 그리 많지 않다.

① 경제(經濟)
② 번식(繁殖)
③ 국방(國防)
④ 교육(教育)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여왕개미가 알을 낳고 일개미가 이를 돕는 역할 분담은 **자손을 남기는 일**과 관련된다. 따라서 두 빈칸에는 '번식'이 들어간다.

공통 해설

'번식'은 생물이 자손을 만들어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을 뜻한다. 글에서는 여왕개미가 알을 낳는 일을 전담하고, 일개미가 직접 자식을 낳는 대신 여왕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첫 번째 빈칸의 '번식 분업'은 **자손을 낳는 역할과 이를 돕는 역할의 분담**을 뜻하고, 두 번째 빈칸의 '군락의 번식'은 그 분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을 나타낸다.

앞부분의 '생산성', '경영방식'은 분업을 설명하는 표현이지만, 뒤의 '유전자를 보다 많이 후세에 남기고자', '자식을 낳아 키우기'가 빈칸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두 빈칸에 공통으로 필요한 말은 자손을 남기는 일을 가리키는 '번식'이다. 경제·국방·교육은 이 핵심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NoteBase

문 2.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사례로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 마감, ㉡: 무릎이
② ㉠: 며칠, ㉡: 없었고
③ ㉠: 빛깔, ㉡: 여덟에
④ ㉠: 꼬락서니, ㉡: 젊은이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빛깔'은 [빋깔]로 발음되지만 **'빛'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의 사례이다. '여덟에'도 '여덟'의 형태를 유지하므로 ㉡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은 말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원리이고, ㉡은 발음이 달라져도 뜻을 가진 단위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원리이다. 각 짝의 두 낱말을 이 기준으로 구분한다.

① O: '마감'은 '막-'에 접미사 '-암'이 붙은 말이다.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경우이므로, '막암'처럼 원형을 밝히지 않고 '마감'으로 적는다. '무릎이'는 [무르피]로 발음되지만 **명사 '무릎'과 조사 '이'를 구별하여 적으므로** ㉡에 해당한다.

② O: '며칠'은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말이므로 ㉠에 해당한다. '없었고'는 [업썯꼬]로 발음되지만 어간 '없-'과 어미 '-었-', '-고'의 형태를 밝혀 적으므로 ㉡에 해당한다.

③ X: '빛깔'은 명사 '빛'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깔'이 붙은 말이다. [빋깔]로 발음되지만 '빛'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이 아니라 ㉡의 사례**이다. '여덟에'는 [여덜베]로 발음되지만 수사 '여덟'과 조사 '에'를 구별하여 적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짝에서는 '빛깔'을 ㉠에 배치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④ O: '꼬락서니'는 명사 '꼴'에 접미사 '-악서니'가 붙은 말이다.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꼴'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꼬락서니'로 적어 ㉠에 해당한다. '젊은이'는 [절므니]로 발음되지만 '젊다'의 어간 '젊-'을 밝혀 적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① 꼼꼼히
② 당당히
③ 섭섭히
④ 정확히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확히'는 **'히'로만 나는 말**로, '이'와 '히' 두 가지로 나는 말의 사례가 아니다. '-히'로 적는다는 점만으로 밑줄 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 해설

밑줄 친 부분은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도, '히'로도 나는 경우에 '-히'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히'로만 나는 경우도 '-히'로 적으므로, **표기가 아니라 발음 유형**을 구별해야 한다.

'꼼꼼히', '당당히', '섭섭히'는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 **'이, 히'로 나는 말**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 말 모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정확히'는 같은 조항에서 **'히'로만 나는 말**로 분류된다. 실제 발음은 [정⊠화키]로, '확'의 받침 'ㄱ'과 뒤의 'ㅎ'이 합쳐져 [ㅋ]으로 소리 난다. '-히'로 적는 것은 맞지만, '이'로도 나는 말은 아니므로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4. <보기>의 ㉠~㉣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투자자들은 제각기 제 살 구멍을 찾아 (㉠)을 서두르는 거대한 개미 떼와도 같이 이리저리 쏠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는 재개발로 인해 (㉡)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오래 길들인 생활의 터전을 내준 걸 후회했다. 뒤늦게 후회해 봤자 (㉢)이었다. 수사팀은 거기서부터 추리가 막히고 (㉣)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① ㉠ - 자가당착
② ㉡ - 상전벽해
③ ㉢ - 만시지탄
④ ㉣ - 오리무중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각기 제 살길을 찾는 상황에는 **각자도생**이 어울린다. '자가당착'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가당착'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 서로 모순되는 것을 뜻한다. 투자자들이 '제각기 제 살 구멍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은 자기모순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살길을 찾는 것**이므로, ㉠에는 '각자도생'이 어울린다.

② O: '상전벽해'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일이나 주변 모습이 **몰라볼 정도로 크게 달라짐**을 이른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가 재개발로 크게 바뀌었다는 내용에 어울린다.

③ O: '만시지탄'은 **시기가 늦었음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함**을 뜻한다. 이미 생활의 터전을 내준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므로 문맥에 맞는다.

④ O: '오리무중'은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뜻한다. 수사팀의 추리가 막혀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어울린다.

NoteBase

문 5. <보기>의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① 반어적 어조로 현실을 풍자하였다.
② 명령과 반복의 기법을 통하여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③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④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껍데기는 가라'는 말은 속뜻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을 없애려는 뜻을 직접 드러낸 **명령적·단정적 표현**이다. '알맹이'와 '껍데기'를 대비하여 순수한 민족정신은 지키고 허위와 억압은 버리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반어는 실제로 전하려는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작품의 '껍데기는 가라'는 버려야 할 것을 물러가라고 직접 명령하므로 반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의 부정적인 요소를 빗대어 비웃는 반어적 풍자보다는, 이를 물리치려는 **직설적이고 단호한 의지**가 드러난다.

② O: '가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껍데기는 가라'를 거듭 반복한다. 이 **명령형의 반복**은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려는 태도를 강조하며, '알맹이'와 '흙가슴'으로 나타낸 순수한 가치를 남기려는 주제를 선명하게 한다.

③ O: '사월'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은 각각 4·19 혁명과 동학 농민 운동의 저항 정신을 환기한다. 그 정신은 살리고 '껍데기'와 '쇠붙이'는 물러가라고 요구하므로, 민족을 억누르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④ O: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터전을 나타낸다.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에서 맞절하는 모습은 화합과 결합을 상징한다. 여기에 '쇠붙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표현이 더해져, 대립과 폭력을 걷어 낸 **평화로운 민족 통일**에 대한 염원이 드러난다.

NoteBase

문 6.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문장은?

① 예전에 가 본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② 사람을 돕는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데나 쓴다.

④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아니신데'는 그럴 분이 아니라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뒤의 '큰 실수를 하셨다'와 이어 준다. 이때 '-ㄴ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공통 해설

'데'의 띄어쓰기는 문장에서의 기능으로 구별한다. **장소·일·경우 등을 뜻하는 의존 명사 '데'**는 앞말과 띄어 쓰고,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 '-ㄴ데', '-는데'**는 앞말에 붙여 쓴다.

'가 본데가'의 '데'는 예전에 가 본 장소를 뜻하므로 '가 본 데가'로 고친다. '돕는데에'와 '대접하는데나'의 '데'는 각각 사람을 돕는 일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가리키므로 '돕는 데에', '대접하는 데나'로 고친다. 뒤에 붙은 '가', '에', '나'는 조사이므로 '데'에 붙여 쓴다.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에서는 그럴 분이 아니라는 앞 절의 내용과 달리 큰 실수를 했다는 뒤 절의 내용을 연결한다. 여기의 '-ㄴ데'는 장소나 일을 뜻하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연결 어미이므로 '아니신데'처럼 붙여 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훌륭한 사람 밑에서 지내면 그의 덕이 미치고 도움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①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
② 무른 땅에 말뚝 박기
③ 금강산 그늘이 관동 팔십 리
④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금강산 그늘이 관동 팔십 리'는 **훌륭한 사람의 덕이 주변 사람에게 미쳐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보기>의 '훌륭한 사람 밑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음'과 의미가 일치한다.

공통 해설

<보기>는 훌륭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그 사람의 덕과 도움을 받는 관계를 설명한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속담이 '금강산 그늘이 관동 팔십 리'이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주변에 널리 미친다는 데 빗대어, **훌륭한 사람의 좋은 영향이 그 아래에서 지내는 사람에게까지 미침**을 표현한다. 따라서 속담 속 영향의 근원인 금강산은 훌륭한 사람에, 그 영향이 미치는 주변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대응한다.

NoteBase

문 8. 음운규칙 중 동화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權力) → [궐력]

② 래일(來日) → [내일]

③ 돕는다 → [돔는다]

④ 미닫이 → [미다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래일 → [내일]'은 단어 첫머리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두음 법칙**의 예이다. 이웃한 소리의 영향을 받아 그 소리와 같거나 비슷해지는 동화와는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동화는 한 음운이 이웃한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음끼리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① O: '권력'의 받침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궐력]으로 발음된다. 비음 'ㄴ'이 유음 'ㄹ'과 같아지는 **유음화**이므로 동화에 해당한다.

② X: '래일 → [내일]'은 한자음 '래'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내'로 바뀌는 **두음 법칙**의 예이다. 이웃한 소리의 성질을 닮은 것이 아니라 단어 첫머리에 'ㄹ'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이므로, 동화의 예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③ O: '돕는다'의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돔는다]로 발음된다. 두 자음이 똑같아지지는 않지만 **비음이라는 성질을 닮는 비음화**이므로 동화에 해당한다.

④ O: '미닫이'의 받침 'ㄷ'이 접미사 '-이'의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바뀌어 [미다지]로 발음된다. 이는 **구개음화**로, 자음이 모음 'ㅣ'와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로 바뀌므로 동화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보기>의 ㉠~㉣ 중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보기〉

ᄉᆡ미 ㉠ 기픈 ㉡ 므른 ㉢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ᄊᆡ ㉣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① ㉠ - 기픈

② ㉡ - 므른

③ ㉢ — ᄀᆞᄆᆞ래

④ ㉣ - 내히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픈'은 형용사 어간 '깊-'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말이다. 뒤의 '므른'을 수식하며, 조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공통 해설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문장 안에서의 관계나 특별한 뜻을 나타내고,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활용형을 만든다. 따라서 비슷한 모양으로 끝나더라도 **체언에 붙은 조사인지, 용언 어간에 붙은 어미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 '기픈'은 '깊다'의 어간 '깊-'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이다. 어간 끝의 'ㅍ'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적었다. '샘이 깊은 물'에서처럼 뒤의 명사 '믈'을 꾸미므로, 여기의 '-은'은 **조사가 아니라 어미**이다.

반면 ㉡ '므른'은 '물'을 뜻하는 명사 '믈'에 보조사 '은'이 결합하여 이어 적힌 형태이다. ㉢은 '가뭄'을 뜻하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로, 현대어의 '가뭄에'에 해당한다. ㉣ '내히'는 명사 '내ㅎ'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로, '내가 이루어져'라는 뜻의 주어를 나타낸다. '내ㅎ'은 'ㅎ 종성 체언'이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ㅎ'이 드러난다. 이 세 표현은 모두 **명사에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기픈'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0. 표준 발음법에 따라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금늉/그뮹]
② 샛길[새□낄/샏□낄]
③ 나뭇잎[나묻닙/나문닙]
④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나뭇잎'은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하여 [ㄴㄴ]으로 발음되므로 **[나문닙]만 표준 발음**이다. [나묻닙]은 비음화가 적용되기 전의 중간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금융'은 표준 발음법 제29항의 '다만'에 따라 **'ㄴ'을 첨가한 발음과 첨가하지 않은 발음을 모두 인정**한다. 'ㄴ'을 첨가하면 [금늉], 첨가하지 않고 받침 'ㅁ'을 뒤 음절로 연음하면 [그뮹]이 된다.

② O: 표준 발음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 뒤의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새□낄]이 원칙**이며,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샏□낄]도 허용한다. 두 발음 모두 첫음절을 길게 발음한다.

③ X: '나뭇잎'은 표준 발음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하므로 [ㄴㄴ]으로 발음한다. 'ㄴ' 첨가와 받침의 대표음 발음을 거친 [나묻닙]에서, 'ㄷ'이 뒤의 'ㄴ'에 동화되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까지 적용한 [나문닙]**이 표준 발음이다. 따라서 [나묻닙]은 발음 과정을 보인 중간 단계이며, 허용되는 별도의 표준 발음이 아니다.

④ O: '이죽이죽'도 표준 발음법 제29항의 '다만'에 따라 두 발음을 모두 인정한다. 'ㄴ'을 첨가하면 앞의 받침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비음화되어 **[이중니죽]**이 된다. 'ㄴ'을 첨가하지 않고 받침 'ㄱ'을 뒤 음절로 연음한 [이주기죽]도 허용한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작품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이때 뚜우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 )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 ),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양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내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 )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잤꾸나.

① 1936년에 발표한 작가 이상의 대표작이다.

② ( ) 안에 들어갈 공통 단어는 '날개'이다.

③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다.

④ 결혼을 앞둔 남녀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결혼을 앞둔 남녀관계'는 작품의 내용과 다르다. '날개'는 **이미 부부인 '나'와 아내의 뒤틀린 관계**를 통해 무기력한 지식인의 소외와 자아 회복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이상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날개'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작품은 **1936년 9월 '조광'**에 발표되었다.

② O: 겨드랑이에 돋았던 자국, '날자'라는 반복 표현을 연결하면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날개'**이다. 날개가 다시 돋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기력하고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 자아를 회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나타낸다.

③ O: '날개'는 외부 사건보다 **인물의 내면과 의식의 흐름**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소설이다. 의식의 흐름은 인물의 생각·감각·연상이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 서술하는 기법이다. 제시문에서도 정오의 도시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이 겨드랑이의 가려움, 날개에 대한 연상, 날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진다.

④ X: '나'와 아내는 **이미 부부 관계**이며, '나'는 아내에게 의존하여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남녀의 관계를 다룬다는 설명은 이들의 뒤틀린 부부 관계를 다룬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작품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소외된 지식인의 삶을 보여 주며, 마지막의 비상에 대한 갈망은 그 삶에서 벗어나 자아를 회복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12.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 쓴다. ③에 포함된 **'ㄷ'은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외래어를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도록 한다. 이는 현재 쓰는 기본 자음 14개와 기본 모음 10개를 바탕으로 표기하며, 외국어의 소리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글자나 별도의 기호를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O: 제1장 제2항은 외래어의 **1음운을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도록 한다. 외국어의 철자 하나하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의 단위인 음운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한글 표기를 정한다는 뜻이다. 다만 '원칙적으로'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일대일 대응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제1장 제3항에 따라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 선지에 들어 있는 'ㄷ'은 제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마지막 받침은 [ㄷ]으로 발음되지만, 표기할 때는 'ㄷ'이 아니라 'ㅅ'을 쓴다. 받침의 발음과 받침에 쓰는 글자를 구별해야 한다.

④ O: 제1장 제4항은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파열음의 된소리는 'ㄲ, ㄸ, 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영어 game은 '께임'이 아니라 '게임'으로 적는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 중 이 글의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남녀평등 문제는 앞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 현재의 출산율은 1.17명이다. 한 부부가 아들과 딸 중 하나를 낳아 기른다는 걸 의미한다. 아들 선호사상이야 사라지지 않겠지만 평등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 높아진 평등의식도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 각계에 여성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이런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다.
㉣ 내 딸만큼은 나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한국 어머니들의 한(恨)이 높은 여성교육 열기로 이어지고 쌓인 결과이기도 하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출산율 변화, 높아진 평등의식, 여성교육 열기는 모두 **남녀평등 문제가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은 이 근거들을 포괄하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다.

NoteBase

핵심 풀이

주제문은 글 전체에서 말하려는 중심 생각을 담은 문장이다. 이 글은 먼저 전망을 제시한 뒤 그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한다.

㉠: '남녀평등 문제는 앞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는 남녀평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글쓴이의 전망이다. 뒤의 출산율 변화, 평등의식 향상, 여성교육 열기가 모두 이 전망을 뒷받침하므로 **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문**이다.

㉡: '현재의 출산율은 1.17명이다'는 글쓴이가 전망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자녀를 적게 낳아 기르는 상황을 남녀평등 문제의 개선과 연결한다. 아들 선호사상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평등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므로, 출산율은 중심 주장 자체가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이다.

㉢: '높아진 평등의식도 긍정적 요인이다'는 남녀평등의 개선을 기대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특히 '도'는 앞의 출산율 변화에 **추가 근거를 덧붙임**을 나타낸다. 평등의식 향상은 글 전체의 전망을 뒷받침하는 한 요인이다.

㉣: 어머니들의 한(恨)이 여성교육 열기로 이어졌다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는 배경**을 설명한다. 여성교육에 관한 세부 설명이므로 출산율과 평등의식까지 포괄하는 주제문으로 보기 어렵다.

NoteBase

문 14. <보기> 작품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숲은 만조다
바람이란 바람 모두 밀려와 나무들 해초처럼 일렁이고
일렁임은 일렁임끼리 부딪쳐 자꾸만 파도를 만든다
숲은 얼마나 오래 웅웅거리는 벌떼들을 키워온 것일까
아주 먼 데서 온 바람이 숲을 건드리자
숨죽이고 있던 모래알갱이들까지 우우 일어나 몰려다닌다
저기 거북의 등처럼 낮게 엎드린 잿빛 바위,
그 완강한 침묵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듯 (㉠)
아니라 아니라고 온몸을 흔든다 스스로 범람한다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숲은 육탈(肉脫)한다
부러진 나뭇가지들 떠내려간다

① 숲은 푸르다
② 숲은 출렁거린다
③ 바다는 조용하다
④ 바다는 깊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해초처럼 일렁이고', '파도를 만든다', '스스로 범람한다'는 표현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 바다의 움직임에 빗댄 것이다. 빈칸에는 이러한 비유를 이어 가면서 **숲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드러내는 구절이 들어가야 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첫 구절 '숲은 만조다'는 숲을 물이 가득 찬 바다에 빗댄 표현이다. 이어 나무들이 '해초처럼 일렁이고', 그 일렁임이 '파도를 만든다'고 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모습을 바다의 움직임으로 나타낸다. 빈칸 앞의 '완강한 침묵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표현과 뒤의 '온몸을 흔든다', '스스로 범람한다'도 고요함을 깨뜨리는 움직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숲을 주체로 삼아 물결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숲은 출렁거린다'가 어울린다.

'숲은 푸르다'는 숲의 색채를 나타낼 뿐, 앞뒤에서 강조하는 움직임을 이어 주지 못한다.

'바다는 조용하다'는 일렁임과 범람의 역동적인 모습에 어긋난다.

'바다는 깊다'는 깊이라는 속성을 제시하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 맞는 구절은 ②의 '숲은 출렁거린다'이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단어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새 책
② 갖은 양념
③ 이런 사람
④ 외딴 섬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런'은 '이와 같은'이라는 뜻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다. 나머지는 대상의 구체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이다.

선지별 해설

밑줄 친 네 단어는 모두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이다. 여기서는 품사가 같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 문맥 속 대상을 가리키는지를 비교한다.

① '새': 성상 관형사이다. '새 책'에서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한** 책이라는 성질을 나타낸다.

② '갖은': 성상 관형사이다. '갖은 양념'에서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 양념이라는 뜻으로 양념의 성상을 나타낸다. 이때 '갖은'은 동사 '갖다'의 활용형이 아니라 하나의 관형사이다.

③ '이런': 지시 관형사이다. '이런 사람'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상황이나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의 성질·모양 등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어떤 구체적인 성질인지는 문맥을 통해 정해진다.

④ '외딴': 성상 관형사이다. '외딴 섬'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상태를 나타낸다.

'새·갖은·외딴'은 대상의 성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③의 '이런'은 문맥 속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NoteBase

문 16. <보기>를 읽은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지개’를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일곱 빛깔의 줄’이라고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연상이 사라질 정도로 ‘무지개’는 아름다운 우리말이다. 국어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무지개’가 ‘물’과 ‘지개’로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언뜻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무지개’는 원래 ‘물’과 ‘지개’의 합성어인데,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무지개’가 되었다. ‘무지개’에 ‘물’이 관계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물’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개’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문헌에 처음 보이는 형태는 ‘므지게’인데, 15세기 『용비어천가』나 『석보상절』과 같은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문헌에 등장한다. ‘물[水]’의 15세기 형태인 ‘믈’에 ‘지게’가 합쳐진 것으로, ‘지게’의 ‘ㅈ’ 앞에서 ‘믈’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① ‘물’의 ‘ㄹ’이 ‘지개’의 ‘ㅈ’ 앞에서 탈락한 것이라면, 탈락의 조건은 무엇일까?
② ‘지개’가 ‘지게’에서 온 말이라면, ‘ㅔ’와 ‘ㅐ’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까?
③ ‘무지개’가 ‘물’과 ‘지게’가 합쳐져 변화한 말이라면, 변화한 때는 언제일까?
④ ‘무지개가 뜨다’, ‘무지개가 걸리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일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뜨다', '걸리다'라는 **표현 사용의 적절성**을 묻는다. 글의 중심은 '무지개'의 **어원과 형태 변화**이므로, 이와 관련된 변화의 조건이나 시기를 묻는 것이 글에 근거한 의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물'과 '지개'가 합쳐지면서 'ㅈ' 앞의 'ㄹ'이 탈락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탈락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다른 경우를 더 알고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② O: 글에는 현재의 '무지개'와 15세기 문헌의 '므지게'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개'의 'ㅣ'와 '지게'의 'ㅔ'라는 **모음의 차이가 생긴 까닭**을 묻는 것은 글에서 제시한 두 형태를 비교하여 얻은 의문이다.

③ O: 글은 '므지게'가 15세기 문헌에 등장한다고 밝히지만, 단어가 합쳐지고 형태가 변화한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는다. **문헌에 나타난 시기와 실제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구별해야 하므로,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 더 묻는 것은 글의 설명을 심화하는 의문이다.

④ X: '무지개가 뜨다', '무지개가 걸리다'가 적절한지 묻는 것은 **단어와 서술어를 함께 쓰는 표현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이다. 글은 '무지개'를 이루는 말과 역사적 형태 변화를 설명하며, 이러한 표현의 쓰임은 다루지 않는다. 글의 내용에 근거한 의문으로 바꾸려면 '지게는 어떤 뜻이어서 물과 결합했을까?'처럼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야 한다.

NoteBase

문 17.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단어로만 짝지은 것은?

① 숫양 — 숫기와
② 숫병아리 — 숫당나귀
③ 수퇘지 — 숫은행나무
④ 수캉아지 — 수탉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숫병아리'와 '숫당나귀'는 각각 **'수평아리', '수탕나귀'**로 고쳐야 한다. 두 말은 접두사 '수-' 뒤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도록 인정한 단어이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표준어 규정 제7항에서는 수컷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수-'로 통일한다. 다만 일부 단어는 접두사 뒤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고, '숫양·숫염소·숫쥐'는 예외적으로 '숫-'을 쓴다. 이 문항은 각 짝의 두 단어가 모두 비표준 표기인지를 묻는다.

① 숫양: **'숫-'을 쓰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표준 표기이다.

① 숫기와: 비표준 표기이다. '기와'와 결합한 말은 접두사 뒤의 'ㄱ'을 거센소리 'ㅋ'으로 적으므로 **'수키와'**로 고친다.

② 숫병아리: 비표준 표기이다. 접두사 뒤의 'ㅂ'을 거센소리 'ㅍ'으로 적는 말이므로 **'수평아리'**로 고친다.

② 숫당나귀: 비표준 표기이다. 접두사 뒤의 'ㄷ'을 거센소리 'ㅌ'으로 적는 말이므로 **'수탕나귀'**로 고친다.

③ 수퇘지: '돼지'와 결합할 때 첫소리 'ㄷ'을 거센소리 'ㅌ'으로 적도록 인정한 말이므로 표준 표기이다.

③ 숫은행나무: 비표준 표기이다. '은행나무'는 '숫-'을 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수은행나무'**로 고친다.

④ 수캉아지: '강아지'와 결합할 때 첫소리 'ㄱ'을 거센소리 'ㅋ'으로 적도록 인정한 말이므로 표준 표기이다.

④ 수탉: '닭'과 결합할 때 첫소리 'ㄷ'을 거센소리 'ㅌ'으로 적도록 인정한 말이므로 표준 표기이다.

두 단어가 모두 비표준 표기인 짝은 ②의 '숫병아리ㅡ숫당나귀'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어이려뇨 어이려뇨 싀어마님아 어이려뇨
쇼대남진의 밥을 담다가 놋쥬걱 잘를 부르쳐시니 이를
어이ᄒᆞ려뇨 싀어마님아 져 아기 하 걱정 마스라
우리도 져머신 제 만히 것거 보왓노라

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
②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인간의 범상한 욕구를 조명하여 희극적 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인물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실수를 꾸짖는 대신 **자신도 젊었을 때 같은 경험을 했다**며 안심시킨다. 따라서 며느리의 잘못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공감으로 긴장이 풀린다.

선지별 해설

① O: 며느리가 놋주걱 자루를 부러뜨린 일을 말하며 '싀어마님아'라고 부르고, 시어머니가 '져 아기 하 걱정 마스라'라고 응답한다. 며느리의 걱정과 시어머니의 위로가 이어지는 **대화 형식**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② O: 첫 부분에서 **'어이려뇨'가 반복**되고, '싀어마님아'도 거듭 나타난다. 같은 시어의 반복은 소리의 규칙적인 흐름을 만들어 리듬감을 형성하며, 당황한 며느리의 심정도 강조한다.

③ O: 며느리가 샛서방의 밥을 담다가 놋주걱 자루를 부러뜨린 사건을 통해 남녀 간의 애정과 성적 욕구라는 일상적인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 샛서방은 본남편 외에 관계를 맺는 남자를 뜻한다. 꾸지람을 할 법한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신도 젊었을 때 많이 꺾어 보았다고 말하는 **예상 밖의 반응**이 긴장을 풀며 웃음을 자아낸다.

④ X: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들려준다. 이는 며느리를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시어머니의 공감으로 긴장이 해소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당신' 중에서 인칭이 다른 것은?

①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②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③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④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의 장서'에서 '당신'은 앞에 나온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는 삼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나머지 문장의 '당신'은 말을 듣는 상대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공통 해설

인칭은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말을 듣는 상대를 직접 가리키면 이인칭이고, 이야기 속 제삼자를 가리키면 삼인칭이다.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도 삼인칭에 속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에서 '당신의 장서'는 할아버지 자신의 장서라는 뜻이다. 이때 '당신'은 듣는 상대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앞에 나온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며 높이는 말**이다. 따라서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삼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입니까?'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당신'으로 가리킨다. 배우자에게 다짐하거나 상대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거나 상대에게 질문하는 상황이므로 모두 이인칭이다. 높임이나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도 듣는 상대를 가리킨다는 점은 같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강호(江湖)에 ᄀᆞ을이 드니 고기마다 ᄉᆞᆯ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흘니 ᄯᅴ여 더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ᄎᆞ노ᄆᆡ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ᄆᆡ라
무심(無心)ᄒᆞᆫ 달빗만 ᄉᆡᆺ고 ᄇᆞᆫᄇᆡ 저어 오노라.

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표현하였다.
②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동일한 문학 장르의 정형시 작품들이다.
④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의 '역군은(亦君恩)'에만** 드러난다. (나)는 고기를 잡지 못해도 달빛을 싣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욕심 없이 자연을 즐기는 마음**을 표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강호에서 배를 띄우고 소일하는 모습을, (나)는 가을 강에서 달빛을 즐기며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다. 두 작품 모두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표현한다.

② O: (가)의 '소정(小艇)'은 작은 배로, 화자는 여기에 그물을 싣고 배를 띄운다. (나)의 화자는 낚시를 드리웠다가 고기가 물지 않자 빈 배를 저어 돌아온다. 고기를 잡는 도구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 모두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장면**을 담고 있다.

③ O: 두 작품은 모두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진 시조**이다. 시조는 각 장이 4음보를 기본으로 하는 정형시이므로, 두 작품은 같은 문학 갈래에 속하며 정형성을 지닌다.

④ X: (가)의 '이 몸이 소일하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는 자신이 한가롭게 지내는 것 역시 임금의 은혜라는 뜻이다. 반면 (나)는 고기를 잡지 못해도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욕심을 벗어난 여유를 드러낸다. 따라서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은 두 작품의 공통점이 아니라 **(가)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NoteBase